

지속가능 지역문화 발전 동행 잇는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전북은행,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성공 추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주국제영화제와 전북은행이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주국제영화제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1일 전주시장에서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백종일 전북은행장, 정준호·민성욱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행사인 전주국제영화제와 대표 금융기관인 전북은행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전주국제영화제의 2025년 메인스폰서를 맡게 되며, 영화제 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인스폰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양측은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전북은행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화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국제영화제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1일 전주시장에서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백종일 전북은행장, 정준호·민성욱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은행도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계기로 지역문화 지원에 더욱 힘을 쏟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전주국제영화제와 금융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만들어가는 상생 모델이란 점에서 이번 협약이 매우 의미 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릴간 고사동 영화의거리 등 전주시 일원에서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식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야당, 폐막식은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각각 열린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내버스 타고 이팝나무 축제 즐겨요”

26일~5월 6일 팔복예술공장 일대에서 개최... 축제 기간 운행 확대

평소 출입이 통제되는 전주시 팔복동 철길에 새하얀 이팝나무꽃 개화기를 맞춰 전면 개방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이곳을 오가는 전주시내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2025 전주 이팝나무 축제'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시내버스를 집중 운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봄철 흥남리는 새하얀 이팝나무를 즐기기에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축제장을 경유하는 15개 시내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총 70대의

버스를 하루 637회 운행,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축제장을 경유하는 전주시내버스 노선은 △101번 △103-1번 △103-2번 △337번 △383번 △385번 △401번 △402번 △403번 △420번 △644번 △684번 △1001번 △1002번 등으로, 팔복예술공장과 기지재교,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팔복동 행정복지센터 등 축제 인근 정류장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또한 시는 '하얀 꽃비 속으로, 시내버스로 편리하게!' 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내버스 내·외부에 안내 플래카드와 테마 포스터를 부착하고 주요 정류장에서는 '이팝나무 축제' 안내 음성을 송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버스 내부에 설치된 테마 포스터의 경우 시민들이 이동 중에도 계절의 정취와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시는 SNS와 블

로그 등 온라인 홍보 채널은 물론 현장 안내 요원을 통한 오프라인 안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26일과 27일, 5월 3일~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맞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팔복예술공장 일원 이팝나무 철길(기린대로~신복로) 약 630m 구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간(오전 10시~오후 6시)에는 기린대로부터 신복로까지 약 630m 전 구간이 개방되고, 야간(오후 6시~오후 9시)에는 간담막이 위치한 금학교부터 신복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하얀 불꽃과 경관조명의 어우러짐을 즐길 수 있다.

시는 팔복동 철길 개방 시기에 맞춰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주시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동안에는 이팝나무 철길에서 '전주 함께장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주 이팝나무 장터'를 개최하는 등 축제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전주시보건소, 장애인의 날 맞아 퀴즈·체험 등 진행

전주시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25일까지를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에티켓,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첫날인 21일에는 전주시보건소에서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애에 인식개선 퀴즈 풀기 △점자 스티커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보건소는 오는 22일과 23일에는 덕진보건소 1층 로비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또 공식 누리집(health.jeonju.go.kr)을 통해 △장애인의 날의 의미 △장애 발생 예방 5계명 △올바른 장애인 에티켓 △베리어 프리(Barrier-Free) 개념 등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를 게재하는 등 장애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주 시민들께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 없는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주시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면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재활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청소년 중독 예방·치료 지원 조례안 채택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전주시의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2등)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인터넷 게임과 음주, 흡연, 도박, 마약류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치료·재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



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치료 및 재활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비밀준수 의무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남숙 의원은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효자2동 헬스톤 프라자 전주지점,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성금기탁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박시용)은 21일 관내에 위치한 헬스톤 프라자 전주지점(대표 정하운)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141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 모금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 헬스톤 프라자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일상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헬스톤 프라자 정하운 대표는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작거나 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